
▣ 일반논문 ▣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조재곤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김종규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영우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신순철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조재곤**

〈목 차〉

- 머리말 : 일본군의 조선 출병 명분이 된 고부농민항쟁
I. 「전라고부민요일기」 분석
II. 외교당국과 토벌군 대대장의 기록
III. 신문 및 개인 저술기록
IV. 1895년~일제강점기의 이해
맺음말

〈국문초록〉

동학농민전쟁의 전사(前史)로서 고부농민항쟁의 의미는 적지 않다. 1894년 1월 조선의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그리 크지 않았던 농민봉기가 결국 동학농민전쟁으로 비화하였다.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그로 인한 청군 출병은 일본 정국의 국면전환 계기로 작용하여 정부와 군부는 의회 해산과 출병의 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글은 고부농민항쟁 발생부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 이 논문은 2023. 9. 15 정읍시 주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부와 언론, 개인을 포함한 일본인이 이해하고 있던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같은 시기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용은 첫째, 1894년 봄 고부농민항쟁 직후에 작성된 「전라도고부민요일기」의 작성 경위와 필자를 추정하고 그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다. 둘째, 같은 해 주한 일본공사관 보고 기록과 조선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의 보고와 개인 저술 등에 나타난 고부농민항쟁의 이해와 실상을 살폈다. 셋째, 1895년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작성된 서적에서 이해하고 있는 고부항쟁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 고부농민항쟁, 동학농민전쟁, 이치지 코스케, 전라도부민요일기, 파계생

머리말 : 일본군의 조선 출병 명분이 된 고부농민항쟁

일본은 1876년 함포의 위력으로 조선을 강제 개국시켰고, 1882년과 1884년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개입하여 조선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끝내 청국으로부터 그 우위권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청국과의 전쟁을 겨냥하면서 조선 지배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1884년부터 1894년까지 10여 년간 계속 군비(軍備)와 군비(軍費)를 증강하면서 그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청국의 ‘속방’인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군대 파견을 통한 조선 침략의 기회를 넘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94년 1월 조선의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그리 크지 않았던 농민봉기가 결국 큰 전란으로 비화하였다. 시골 백성들이 일으킨 자그마한 날갯짓이 동학농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침략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외사(外事)’였고 출병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결정적 시기를 모색하던 중 전라도 농민군의 전주 점령 소식을 듣고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군대의 파견

을 결정하게 된다.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그로 인한 청군 출병은 일본 정국의 국면전환 계기로 작용하여 정부와 군부는 의회 해산과 출병의 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군 출병의 가장 큰 명분은 ‘거류지 보호론’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학농민군이 투쟁을 일시 중단하여 치안이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류지 보호론’을 들어 동양의 평화와 자국의 안전보장을 내걸고 출병했다. 즉, 「텐진조약」과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드디어 천황 메이지는 조선 파병 결정을 재가하는데, 이는 민씨 정권의 청국군 개입요청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¹⁾ 결국 일본의 침략 의도는 이미 짜여 있었으며 향후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고부농민항쟁 발생 시기부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언론, 개인을 포함한 일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같은 시기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²⁾ 그간의 연구가 한국인의 처지에서 한국인의 시각으로 고부농민항쟁을 다뤘다면 이 글은 진압자였던 일본인의 시각과 인식을 다루어 동학농민전쟁의 다양한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894년 봄 고부농민항쟁 직후에 작성된 「전라고부민요일기」의 작성 경위와 필자를 추정하고 그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다음은 같은 해 주한 일본공사관 보고 기록과 조선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의 보고와 개인 저술 등에 나타난 고부농민항쟁의 이해와 실상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1895년 이

1) 朴宗根, 1982, 『日淸戰爭と朝鮮』, 靑木書店(朴英宰 역, 1989, 『淸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一潮閣, 16쪽).

2) 고부농민항쟁(고부민란, 고부농민봉기)에 관한 그간의 많은 연구 중 정창렬·김용섭·배항섭의 연구가 주목된다. 정창렬은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였다(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下), 『韓國史研究』 48·49). 김용섭은 고부지역의 역사적 조건을 통한 고부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였다(金容燮, 2001, 『韓國近代農業史研究』(III), 知識産業社). 배항섭은 동학농민전쟁 발발의 배경으로서 고부민란에 주목하였다(裨亢燮,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景仁文化社).

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작성된 서적에서 이해하고 있는 고부항쟁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 「전라고부민요일기」 분석

1. 작성 경위와 필자

일본 정부는 청국과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조선의 정세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 가운데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동학의 연원과 동학농민군의 동향, 일본군과의 전투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공사관기록’ 중 특히 필명 ‘파계생(巴溪生)’의 「전라고부민요일기사본(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은 동학농민군의 초기활동인 고부농민항쟁의 전모를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일기는 부산 일본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가 임시대리공사 일등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쓰던 일본인이 1894년 5월 16일(갑오년 음력 4월 12일) 군부와 외부 당국에 보고한 문서의 사본이다. 내용은 1894년 2월 15일(음력 정월 10일)의 고부 관아 습격부터 이후 백산봉기와 황토현 전투까지 4개월간의 사건을 고부군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내호(萊湖)라는 곳에서 보고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다.³⁾ 이 기록은 당시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비망록 『비서유찬(秘書類纂) 조선교섭자료(朝鮮交涉資料)』 중권(中卷)에도 「전라도고부민요일기(全羅道古阜民擾日記)」라는 제목으로 수

3)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는 일본인 某가 본 항구에 거류하는 某에게 보내온 동학당의 소요 반란에 관한 일기를 얻었으므로 별지 사본 1책을 참고로 올립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二) : (8) 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送付」, 1894년 5월 30일 在釜山 總領事 室田義文→在京城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록되어 있다.⁴⁾ 다만 ‘공사관기록’과 ‘비서유찬’의 차이는 ‘전라고부민요일기’와 ‘전라도고부민요일기’, ‘내호(萊湖)’와 ‘채호(菜湖)’, 사본과 원본 일 뿐으로 서술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참모본부 역사 초안』에 따르면, “동학당 사건에 대해 좌관(佐官) 1명(이치지[伊地知])은 5월 15일 도쿄를 출발해 해당 지역으로 향함. 2~3일 내로 되돌아올 것임. (중략) 좌관 1명(이치지), 속관(屬官) 1명은 군사 및 지형정탐을 위해 조선과 동부 시베리아에 파견되어 있음”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1894년 6월 1일~12일 사이에 참모총장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타루히토 친왕(熾仁親王)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그 앞머리에 “이 여러 건은 월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무엇 때문에 이를 조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개는 조선에 출병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기입하였다”고 조선 출병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조사 일시 관련 부분은 일부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여행은 청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한 일본군의 상륙지와 행동 루트에 대한 사전답사의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5월 30일 귀국한 이치지 소좌의 복명을 받은 후 일본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청국과의 전쟁을 미리 계획한 일본 군부는 동학농민군의 동향파악 등 첩보활동에 주력하였고 계속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었다. 참모차장 중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는 1893년 4월 이치지 코스케(伊地知幸介)와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與造) 두 명의 소좌를 조선과 청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들은 첩보 활동을 마치고 동년 8월 귀국하였다. 이 시찰에 기초하여 이후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던 1894년 5월경에는 경성공사관 소속 무관 포병 대위 와타나베

4)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校, 1936, 『祕書類纂朝鮮交渉資料』(中卷), 祕書類纂刊行會, 343~356쪽.

5) 『參謀本部歴史草案』17(資料), 參謀總長 熾仁親王, 明治 27년 6월 1일~12일.

데스타로(渡邊鐵太郎) 및 참모본부원 이치지 소좌가 부산과 서울에서 첩보 활동을 하였다.⁶⁾ 와타나베의 경우 경기·강원·함경·충청·경상 5개 도를 유람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정부가 발급한 호조(護照)를 소지하고 조선의 정황을 정탐하고 있었다.⁷⁾ 그러나 그는 전라도를 간 적이 없었다. 전라도 집강소 활동 등에 관한 일본 상인 시라키 히코타로(白木彦太郎)의 보고도 1차 봉기 후의 상황이었다.⁸⁾ 따라서 고부농민항쟁을 비밀리에 정탐한 자는 이치지 코스케이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감추기 위해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893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는 참모본부 제2국원 소좌 이치지 코스케, 육군감독 사카다 겐산(坂田嚴三) 등과 함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조선과 청국을 정찰한 경험이 있었다. 이때 카와카미는 카와카미 로쿠조(河上六藏), 이치지는 이치지 타다스(伊地知正), 사카다는 사카다 하지메(酒田元)로 변성명하였다. 이들은 기사(技師)로 신분을 속이고 대구·상주·충주를 관광하고 경성으로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3월 1일 조선 정부에 호조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부산을 경유해서 해로로 인천으로 들어온 이들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조선 국왕 고종을 알현하고 흥선대원군과도 면담하였다.⁹⁾

일본 육군대학 제1기 수석졸업생으로 육군 소좌이자 대본영 참모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教)의 비망록에 따르면, 참모본부의 명을 받아 조선에서 동학농민군과 내부 상황을 탐지하던 이치지는 귀국 당일인 1894년 5월 25일 카와카미 관저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때 참모

6) 參謀本部 編, 1904,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爭』 1, 東京印刷株式會社, 94~95쪽; 葛生能久, 1938, 『日支交渉外史(上)』, 黒龍會, 225쪽.

7) 『各司謄錄』 13, 『書契所報關錄』 3, 慶尙道篇 3, 甲午四月十九日.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월 14일부터 전라·충청지방을 여행한 상인 白木彦太郎의 聞取書 要點」, 1894년 7월 23일.

9) 大澤博明, 2019, 『陸軍參謀川上操六: 日清戰爭の作戰指導者』, 吉川弘文館, 53~54쪽.

본부 제1국장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등도 동석하였다. 다음 날 카와카미는 참모총장 다루히토 친왕에게 이치지의 보고 내용을 상신하여 조선 출병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이치지와 함께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관저도 방문해서 출병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동학당의 난이 일어났다는 변보가 도달하자 우리 참모본부는 일찌감치 일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에 국원 이치지(伊地知) 소좌를 조선에 보내 비밀리에 사정을 정탐시켰다. 소좌는 5월 15일 도쿄를 출발하여 그곳으로 가서 상세하게 실정을 탐사하고 떠도는 말은 결코 와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달 25일 동경으로 되돌아와 곧바로 참모차장의 관저로 가서 보고하였다. 이때 참석한 자는 카와카미(川上) 중장을 주로 하여 제1국장 테라우치(寺內) 대좌, 부관 타이세이(大生) 중좌 등이었다. 이에 정좌하여 소좌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우리도 또한 군사를 조선에 보내야 한다는 논의를 결정하였다. 다음 날 카와카미 중장이 문서로서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출병의 승낙을 얻었다. 31일 중장은 이치지 소좌를 수행하고 이토(伊藤) 총리대신의 관저를 방문하여 출병의 논의를 제출하였다”.¹⁰⁾

이에 일본군의 출병이 긴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수상 이토는 드디어 카와카미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출병을 승낙하였다는 것이다.¹¹⁾ 앞의 부산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의 보고와 대본영 참모 도조 히데노리의 비망록으로 유추해 볼 때 이치지 소좌는 고부농민항쟁의 실

10) 東條英教, 『征清用兵 隔壁聽談』,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자료, #.1636. 1897. 도조 히데노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수상이자 패전 이후 전범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아버지다(나카스카 아키라, 한혜인 역, 2014, 「청일전쟁을 둘러싼 기억」,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30쪽; 쿠로노 타에루, 최종호 역, 2015,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 논형, 68~69쪽).

11) 東條英教, 앞의 책, #.1638.

상을 정탐하기 위해 이름을 숨기고 비밀리에 해당 지역에 출장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는 이후 조선 주재 외교관에게 참고를 위해 「전라고부민요일기」의 ‘사본’을 전달하고 원본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에게 건네져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에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조의 기록 『정청용병(征淸用兵) 격벽청담(隔壁聽談)』에서 이토에게 ‘출병의 논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고부항쟁과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관한 「전라(도)고부민요일기」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이토의 외교비망록인 『비서유찬 조선교섭자료』에도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부농민항쟁이 일본군 출병의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청일전쟁 시기 정보 장교로서 활동하던 이치지의 보고가 개전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¹²⁾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에 의하면, “이토 내각총리대신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 참모총장 타루히토 친왕 전하 및 동 차장 카와카미 육군 중장의 임석을 청하여 전하와 중장이 내회(來會)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후 조선에 군대 파출의 내의(內議)를 협의하여 각의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각의 및 의회 해산을 주청(奏請)할 의제를 들고 곧바로 (황실로) 참내(參內)하는 형식에 따라 성재(聖裁)를 청하고 재가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¹³⁾고 한다. 외무차관 하야시 타다스(林董)의 회고록에도 6월 2일 밤 외무대신 관저로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가 비밀리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세 명은 조선 출병을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¹⁴⁾ 다음 날인 6월 3일에 열린 내

12) 長南政義, 2011, 『坂の上の雲に描かれなかった謀將 伊地知幸介』(ゲームジャーナル編, 『坂の上の雲5つの疑問』, 並木書房, 65쪽).

13) 陸奥宗光, 『蹇蹇錄』(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資料, 外務省記録調書 官41), 第1章 東學黨ノ亂.

14) 由井正臣 校注, 1982, 『後は昔の記 他(林董回顧錄)』, 平凡社, 75쪽.

각회의 석상에서 겐로[元老]인 중장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는 이토 히로부미가 출병을 저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그날 밤 무쓰와 논의하여 출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파계생은 먼저 고부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부는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과 부산의 일본 상인들에게는 관계가 적은 지방이라서 그 읍 이름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만, 김제 및 만경 등에 연속된 대평야로서 28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토지는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며 줄포(茁浦)·염소(鹽所)·동진(東津)·사포(沙浦)의 네 항구로부터 원근 각지에 수출하는 양이 적지 않은바(상납액 1만 8,000여 석, 세고(稅庫)는 부안 줄포에 있음), 무역상 중요한 곳의 하나라고 한다.

다음은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인물 됃됨이다. 그는 함경도 방곡령(防穀令)으로 유명한 조병식(趙秉式)의 조카로 가혹한 세금과 잘못된 정치는 실로 일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터라면서 조병갑의 실정(失政)에 관해 기록하였다. 첫 번째는 지난해 가을 이 지방은 풍작이었음에도 방곡령을 선포하고 측근을 시켜 미곡을 많이 사들였다가 쌀값이 폭등할 때를 노려 이를 방매해 순식간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¹⁵⁾ 두 번째는 세미(稅米) 징수 시 극악무도한 짓을 하여 작년 10월경 민심이 적잖이 불온하였다. 같은 해 9, 10월경 승려로 하여금 벽보를 배부하게 하고 보수를 건넸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또 수리(水利)와 관개(灌溉)를 빙자하여 하천에 보를 막고 수세(水稅)를 강제로 거두어들인 일이 있어 이 또한 원한을 산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 吳知泳, 1924, 『東學史』(草稿本), 104~105쪽.

고부농민항쟁의 발생과 확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력 정월 10일(2월 15일) 새벽 동진강 가에서 세력을 정돈한 민군(民軍)은 모두 흰 무명을 머리에 두르고 길이 5자 남짓한 죽창을 지녔다. 처음 모인 사람은 약 500명 정도로 성부(城府)의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여 군수가 사무 보는 곳의 앞까지 왔다. 군수의 침소를 짓밟고 나아가 내부의 여러 건물을 살살이 수색하였다. 노이 이미 달아나 뒤쫓았으나 잡지 못하고 정읍 쪽으로 도망쳤음을 알았다. 수령 7명이 먼저 조당(朝堂)에 들어가서 아전과 악정에 조력한 자들을 소환하였고 오지 않는 자는 잡아들였다. 진영은 정숙하였고 호령은 명석하였으며 여느 반란군 같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악정의 시말을 엄중히 조사하기 위해 매일 구류된 사람들을 국문하였다. 양식으로는 제언의 수세로 강제 징수하여 놓았던 벼 1,400여 석이 제공되었다. 1월 11~14일에 가담한 촌락이 15개 마을, 전체 1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장정을 뽑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돌려보냈다. 이를 통솔하는 자는 한 마을에 5명씩이고 인근 군의 도처에서 동정을 표했으며 대체로 악평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동학당의 두령과 조직화에 관한 서술이다. 두령이란 전명숙(全明淑)·정익서(鄭益瑞)·김모(金某) 세 사람으로 명숙은 상관이고 다른 두 명이 그를 보좌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명숙은 현재 동학당의 한 사람으로 당내에서도 다소 명망이 있는 자이고 다른 두 사람은 그 지방의 사족으로 정익서는 글을 배웠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은 젊어서부터 친구이며, 사건을 일으킨 시초부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이 세 명의 수중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마을의 동장·집강(執綱) 등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하여 하루아침에 실패하게 된다면 18구역 면의 동장·집강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백성들을 함부로 흩어지거나 싫증을 내지 않게 하여 한층 굳게 단결하는 듯했다고 한다. 향촌 자치조직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김모’는 김도삼(金道三, 1856~?)으로 추정된다. 사발통문 서명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그는 전봉준의 이웃 마을인 정읍 이평면 산매리 산매부락에 거주하던 고부 토반 의성 김씨

의 후예로 학식과 덕망이 두터운 선비였다고 한다. 정의서(?~?)는 정읍 정우면 초강리 연지평 출신으로 그 위인이나 문벌이 전하는 바 없으나 민소(民訴) 때마다 선두에 나섰던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¹⁶⁾

동학당의 격문과 전운영(轉運營) 해체 문제도 기술하고 있다. 전라도 전역을 관장하는 ‘민군의 수령’ 즉, 전봉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하 각 군현의 농민군에게 전운영을 파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에 58주(州)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워서 자가들의 목적은 다만 한 군의 이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轉運營)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 병사들은 양식은 먼저 군의 세곡 창고를 빼앗아 이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인심이 흥흥하여 미곡상 등도 따라서 감소되었다.”¹⁷⁾

이는 ‘전봉준 판결문’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미 고부항쟁 직후 농민군 수백 명이 합세하여 부안 줄포의 세고(稅庫)를 파괴한 일도 있었다. 전운영 해체는 고부농민항쟁이 개별 고을 단위의 민란의 단계에서 농민전쟁의 단계로 성격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⁸⁾ 따라서 동학농민군들은 초기 고부항쟁 단계부터 여러 가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 이는 호남의 농민들과 농민군의 중점 해결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것이다.¹⁹⁾

16) 崔玄植, 1980, 『甲午東學革命史』, 鄉土文化社, 41쪽.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二) : (8) 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送付」, 1894년 5월 30일.

18) 정창렬, 2014, 『갑오농민전쟁』, 선인, 172~173쪽.

19) 전봉준 등 농민군들은 제1차 봉기 이후 전주화약 당시 27개 조의 ‘폐정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轉運所를 혁파할 일’이었다(法務衙門,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開國 504年 3月 29日[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編, 1994, 『東學關聯判決文集』, 29쪽).

다음은 농민군의 백산 집결과 항쟁 진행에 관한 것이다. 2월 25일(양 3월 31일) 민군은 공격과 수비에 이롭지 못한 점이 있어 백산(白山)으로 이전하였고, 3월 1일(양 4월 6일) 민군 수백 명이 줄포의 세고를 파괴하였다. 그러던 중 3월 13일(양 4월 18일) 완전히 해산하였다가 3월 20일(4월 25일) 동학군 수만 명이 무장(茂長)의 굴치(屈峙)를 넘어서 덕흥리를 지났다는 장꾼의 말을 들었다. 음력 3월 20일 이날은 농민군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에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사포(沙浦)를 지나 줄포로 왔다. 23일(양 4월 28일) 수백 명이 집합해 있었는데 물어보니, 동학당 수만 명이 바야흐로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며 선도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다. 농민군의 깃발은 척후기(斥候旗) 외에 청홍백황색의 구별이 있었고, 병기는 구제(舊制)의 화승총과 죽창·활·화살·창 등이었다고 한다.

농민군들은 점심을 먹고 난 후 고부로 향해 떠나면서 격문을 사방의 출구에 부착하였는데, “폐정혁신의 요점은 우리 태조(太祖)의 혁신헌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으로 파계생은 글이 꽤 길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날부터 “후군이 날을 정하지 않고 뒤따라올 것이고, 이때 통과할 인원은 3,000여 명이다”, “동학당이 고부의 군기고를 약탈했는데 실수로 화약에 불이 붙어 수십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냈다”, “제주의 동학당이 사포에 상륙하였다”, “동학군의 후진이 서상(西上)한다”, “경군이 장포강구(長浦江口)의 군창(軍倉)으로 상륙하여 전주 감영과 서로 통하였다”, “동학군은 고부를 출발하여 전주 감영과 십리쯤 떨어진 곳에 대진(對陣)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다고 한다.

4월 4일(양 5월 8일) 동진강을 건너 부안성을 함락시킨 동학군은 부안의 지형이 불리하므로 전군을 고부로 옮겨 줄포에 주둔하는 경군과 전주 감영과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농민군이 부안관아를 점거하던 이날 대군이 동진강을 건너 부안에 들어가고 경군은 고부로 들어갔다. 4월 5일에는 지방민이 도망가는 상황을 글로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

였고 파계생 또한 배로 이동하였다. 그는 피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군의 상황을 묻고 답하거나 아니면 인가를 정리하여 피할 땅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날 경군은 영병(營兵) 250명을 중전으로 7,000~8,000명의 고용병을 이끌고 동학군과 대치하였고 줄포의 경군과 함께 합공하려고 하였다.

4월 6일(양 5월 10일)에는 동학군의 낙오자 수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밤 줄포의 경군이 전선에 도달하였고 한 발의 신호포가 울리면서 전투가 벌어졌다. 경군이 돌진하여 일거에 동학군이 짚으로 만든 가성(假城)에 들어가자, 전후에서 탄환을 비 오듯이 쏘아 장병 대부분이 죽어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었고 패잔병은 사망으로 흩어졌다. 7일(5월 11일) 아침 패주하여 온 병사들이 빈번히 배를 구하려고 애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얼마 안 있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도 왔는데, 처음에는 어느 편의 군대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덕으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로 달음질쳐 오는 자 등 그 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고부의 황토산(黃土山)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경군이 대패하여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걸어서 도망친 병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도망쳐 온 패잔병들은 이날 아침 우연히 세미(稅米)를 실으러 온 조선 기선에 구조되어 그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황토현 전투와 패잔정부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후 4월 8일(양 5월 12일) 동학군은 흥덕을 지나갔는데 부내에서 밥을 지어 먹인 사람이 1만 8,000명이라고 했다. 4월 10일(양 5월 14일) 경군이 고창으로 진군한다는 설이 있어 민심은 흥흥하였고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자가 많았고, 4월 11일(양 5월 15일) 방곡령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으로 파계생은 끝을 맺고 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농민군들은 영광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II. 외교당국과 토벌군 대대장의 기록

고부농민항쟁에 대해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은 통상보고 제5호로 본국 정부에 ‘전라도고부민란휘보(全羅道古阜民亂彙報)’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바 있다.²⁰⁾ 이에 의하면, 고부민요(古阜民擾)의 무리에 동학당이 부화(附和)하여 그 무리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전라감사는 실정을 탐문하기 위하여 영관(領官)을 내려보냈더니 난민 등이 죽창으로 그에게 대항하여 영교(營校)는 살해되었고, 영관은 다행히도 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라감사의 전보에 고부의 난민은 만여 명으로서 대홍기(大紅旗)를 세우고 성을 쌓고 도랑을 파고 농기구를 모아 창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감사는 다시 전보하여 고부 등 7개 읍의 민란을 정탐하기 위하여 영관 1명을 파송하였는바 난민에게 타살되었으며 그 기세가 심하여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정부에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급히 전라병사에게 병을 출동시켜 난민을 도륙하라는 전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고부 난민’의 괴수는 동학당의 수령 최시형(崔時亨)이라는 자와 한때 이속이었던 은세하(殷世河)라는 자라고도 한다. 이에 의정부에서는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을 월봉(越俸) 3등에 처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금부에 잡아 가두어 논죄해야 한다고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것이 조보(朝報)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지 난민 휘보(各地民亂彙報)」라는 제목의 보고에서는 고부 외에 평안도 의주, 황해도 황주·중화, 경상도 거창·상주 등의 7읍 및 충청도에서도 민란이 일어나 수령을 축출하고 혹은 백성의 재물을 약취하는데 대체로 소규모 민요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일본공사관의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근래 민란이 일어나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古阜 및 各地民亂彙報 외 4件」, 發第27號, 在京城日本 公使館通常報告 第5號, 1894년 월일 미상.

는 추세는 세도가 민영준(閔泳駿)의 세력 강화와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집권 민씨 일족들의 권력다툼 속에서 민영준을 탄핵하는 민영환(閔泳渙)의 비밀 상주문(上奏文)이 나오게 되었다면서 그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요즘 고부(전라도에 있음) 각 읍의 민요(民擾)는 국가의 크나큰 걱정거리입니다. 예부터 간신이 권력을 농간하면 백관이 인심을 잃고 백관이 인심을 잃으면 만민이 생업을 잃게 되며 만민이 생업을 잃으면 도당을 불러 모으는데 그것이 작으면 도적이요 크면 역적이 됩니다. 신이 었드려 고서를 보건대, 매양 나라에 난리가 처음 일어남에는 화적을 별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근원은 오로지 권신이 하는 일을 그의 하고 싶은 바에 맡기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임금보다 크고 부가 나라보다 더하다면 어찌 애통하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아는 일입니다. 어찌 직언하는 신하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쟁간(爭諫)하여 그 권력을 두려워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²¹⁾

다음 「전라도(全羅道) 고부민란(古阜民亂)」이라는 항목에서는, 전라 감사가 그들이 바라는 안을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타일렀기 때문에 난민들이 점점 흩어져 귀농하려는 모양이지만, ‘오직 동학당의 일단은 무리를 지어 지금도 이산하지 않고 있다’²²⁾면서, 일반 난민과 동학당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한편 일본공사관에서 작성한 동학당을 견문한 일본인의 보고문서라는 내용의 문서가 5월 21일 일본 외무성과 부산총영사·원산영사에게 제출되었다. 이 사람은 신임 만경현감 이 아무개의 부임에 수행하여 음력 3월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일에 만경 도착 후 방향을 바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權臣 彈劾密奏와 古阜民亂件 의 2件」, 報告 第6號, 1894년 월일 미상.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위와 같음.

꾸어 4월 1일 전주로 나와 이곳에서 8~9일간 머물렀다가 귀경하였다고 한다. 그는 고부농민군의 두령과 봉기원인을 설명하고 항쟁의 내용과 무장기포로 가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동학당의 근거는 고부이며 그 수령은 고씨와 박씨인데 이 당이 봉기한 원인은 도백과 군수의 가렴에 기인한 것이다. 일찍이 작년 10월 중 군민은 지방관이 탐욕스럽기 그지없음에 분개하여 관청에 몰려들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하자 군수는 겁이 나서 전주로 도망쳐 감사의 보호를 청하였다. 이에 군민들은 전주로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하였는데, 감사는 지극히 냉담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라의 비용이 급하여 군수로 하여금 불시의 징발을 시켰던 것으로서 결코 군수가 탐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다”라며 도리어 탐관오리를 비호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군민은 크게 격앙하여, “더 이상 지금의 지방관에게 공명 청렴을 기대할 수가 없다. 차라리 울분을 풀고 스스로 설욕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 고부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군에서 10여 리쯤 떨어진 바닷가에 지방관이 창고 3동을 설치하여 양곡을 쌓아 두었었는데, 군민들은 이를 파괴하고 미곡 수만 석을 탈취하여 군읍(郡邑)으로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였다. 또한 관청에 있던 군기를 끄집어내어 군비를 가다듬고, 이해 음력 2월에는 ‘보국안민 창대의(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펴리며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방에서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는데, 그 수가 1,200~1,300명 혹은 800~900명이라고도 한다.²³⁾

일본공사관뿐 아니라 조선 각 지역 소재 영사관에서도 동학농민군 봉기 내용을 외무대신에 전보하였다. 인천영사관에서 파견한 인천항 리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월 18일 全羅道 全州에서 歸京한 者の 直話」, 發第97號(釜山總領事), 發第60號(外務省), 發第56號(元山領事), 1894년 5월 21일.

키다케상점(力武商店) 고원(雇員) 쇼우지마 도라노스케(城島虎之助)의 조 사보고는 다음과 같다.

3월 30일(음 2월 24일) 광제호(廣濟號)로 출발하여 다음 날인 31일 군산진의 남쪽 군창(郡倉)에 도착한 이후 조선 배로 4일 만에 김제에서 육상 80리, 수로 20리 거리의 죽산포(竹山浦)에 도착하여 죽산 동쪽 40리 되는 곳에 동학당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4월 30일(음 3월 25일)에는 동학당 3,500명이 고부 백산으로 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한편 순오선(順五船) 선장 카와무카이 에이노스케(川向榮之助)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전명술(田明述)이라는 자를 대장으로 하는 동학당은 고부의 백산에 3,000명, 고부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1만여 명이나 둔집하였다. 그런데 약 20~30일 전부터 동학당은 사냥꾼에게 명하기를 꿩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2관문(貫文)을 준다는 구실로 대대적으로 충기를 약탈하였다고 한다.²⁴⁾ 농민군 모집과 충기 보급을 위한 유인책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명술은 전봉준의 또 다른 이름인 전명숙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성 2등 영사 우치다 사다쓰치(內田定槌)도 외무대신에게 대한 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상신하면서 조선 지방관의 폐해를 언급하였다. 그는 지방관은 혹은 흉년이라는 명분 아래 방곡령을 발포하여 시세 하락을 틈타 다액의 곡식을 매점한 후 갑자기 금령을 풀어서 보통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는 등, 난폭하고 낭자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⁵⁾ 우치다는 토색 수단으로서 지방관의 방곡령 발포를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東學黨에 관한 報告」,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臨時代理公使 杉村濤, 1894년 5월 16일.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對韓政策에 관한 意見 上申의 件」, 在京城 二等領事 內田定槌→外務大臣 陸奥宗光, 1894년 6월 26일.

소좌의 기록도 공사관기록에 일부 수록되었다. 미나미는 원래 고부현(古阜縣)은 동학도의 본거지이고 고부가 그 본거지로 된 연유를 군수 조병갑의 탐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부의 현령(縣令)이 본시 탐욕스럽고 잔혹하기 짝이 없었으므로 고부의 인민들이 그를 갈아 치워 달라고 여러 번 정부에 청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마침내 200명 정도의 인민이 봉기하여 죽창과 깃발을 들고 힘으로 이를 경질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다음 전봉준의 추대와 봉기를 언급하였는데, 동학도의 거괴(巨魁) 전봉준(全琫準)은 고부현 사람으로 본시 몹시 가난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 가산을 모두 학자금으로 써 더욱더 빈곤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명의 농민이 봉기하자 이를 통솔할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전봉준에게 와서 청해 말하기를, “원하건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힘을 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봉준은 이를 거절하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거듭 청해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중개인이 되었고, 글을 써서 현령을 경질해 달라고 전주부사에게 여러 차례 애원했으나 끝내 용납되지 않았다. 전봉준은 이에 이르러 비로소 ‘폭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고부 근방의 인민은 모두 봉기하여 그에게 호응했다고 기술하였다.²⁶⁾

Ⅲ. 신문 및 개인 저술기록

고부농민항쟁 당시부터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일본 내의 주요 관심사였다. 한 상업출판사에서서는 1894년 3월부터 신문에 『소설(小說) 동학당(東學黨)』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제1차 봉기가 일어나자 5월부터 각 신문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學黨征討略記」, 後備歩兵 獨立第19大隊長 南小四郎 少佐, 1895년 5월.

매체들도 ‘동학당의 폭동’으로 공식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당시 회자되고 있던 소문들을 정확한 확인 없이 흥미 위주 내지는 추측성 기사로 윤색하고 있다. 대부분 일본 외무성과 육군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제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94년 4월 8일자 『지지신보(時事新報)』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반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봉기의 원인은 ‘학정과 과도한 세금 징수’²⁷⁾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4월 22일 자는 아래와 같이 고부농민항쟁을 보도하였다.

“전라도의 민란(21일 오사카(大阪) 특보/전라도 고부(古阜)의 민란이 더욱 창궐이 극에 달하였다. 이 고부 이하 7개 읍의 수만 명이 흰 두건을 쓰고 칼과 창을 들고 황색의 깃발을 펴며 밤에 고부의 관리 3명을 참살(斬殺)하였다. 더욱이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을 살해하고 자 동인(同人)이 이끄는 배를 탈취하였고 그 창고를 부수고 수천 석의 쌀을 반출하였다. 다시 병기(兵器)를 준비하여 경성(京城)으로 향하고자 하였는데 그 수괴는 동학당원(東學黨員) 최차춘(崔次春)이라는 자로서 전라감영에서 수십 명의 병사를 보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임).”²⁸⁾

특이한 내용은 고부봉기를 모의한 농민군의 ‘사발통문’에서 나타난 경성진출설이 일본 자료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내용은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최차춘’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지도자로 적기한 것도 이채롭다.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4월 29일 자 기사도 전운소(轉運所)의 가렴주구에 고부 7개 읍의 인민 수만 명이 봉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체적 맥락은 『도쿄아사히신문』과 유사하다.²⁹⁾ 반면 6월 9일 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전란

27) 『時事新報』, 1894년 4월 8일.

28) 『東京朝日新聞』, 1894년 4월 22일.

의 기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전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군수의 실정(失政)에 따른 것으로, 난민 지도부 3인은 전명숙, 정익서, 김모인데 전명숙이 우두머리고 2명이 이를 보좌한다고 하여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내용상 동일하다.³⁰⁾ 6월 10일 자 『니로쿠신보(二六新報)』의 「조선의 요란(속보)」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측근에게 쌀 수 천 석을 매수케 하여 이득을 취했고 조세징수 시에는 학정을 일삼자 음력 정월 10일 동학당 100여 명이 동진 나루터에서 봉기하고 군수의 침소로 돌입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³¹⁾ 파계생의 기록과 동일하다.

동학농민군 봉기와 활동상에 관한 각종 서적들도 경쟁적으로 출간되었다. 1894년 6월 도쿄에서 발행한 『조선폭동실기』는 고부의 지세, 군수 조병갑과 방곡령, 갑오 정월 10일 동진강 가의 봉기와 조병갑의 도망, 전명숙과 그의 동지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 인쇄 겸 발행자인 다카하시 이우타로(高橋友太郎)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서언(緒言)’에 “본편은 하루아침에 계림(鷄林)에서 난이 일어나자 특별히 통신자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각기 보도케 하였지만 지금은 그 재료가 무릇 산을 이루어 도저히 작은 책으로 기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중략) 이번 조선의 요란에 관해 혹은 확신할만한 입수된 보도에 근거하여 그 요란의 기인을 다음에 열거한다”³²⁾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고부농민항쟁 관련 기사는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똑같다.

1894년 6월 오사카에서 발행된 『갑오조선내란시말』 제1편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³³⁾ 이 책을 저술한 니시지마 칸나미(西島函南, 1870~1923)의 또 다른 이름은 시라이 소메노스케(志良以染之

29) 『大阪毎日新報』, 1894년 4월 29일.

30) 『讀賣新聞』, 1894년 6월 9일.

31) 『二六新報』, 1894년 6월 10일.

32) 高橋友太郎 編輯 發行, 1894, 『朝鮮暴動實記』(東京), 1쪽.

33) 志良以染之助, 1894, 『甲午朝鮮內亂始末』(第1編), 駢々堂(大阪).

助)인데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성 중국어 통역으로 종군하였다. 그는 동학농민군을 ‘폭민(暴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오합지졸의 소동과는 다른 것으로 이번의 소란이 한국 혁명의 시기를 일보 전진시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폭민 봉기의 원인’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니시지마는 첫 번째로 조병갑의 탐학과 방곡령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폭민의 봉기는 온전히 인민의 분노가 쌓인 나머지 나온 것으로, 전라도 고부군은 지난 가을 수확 당시 뜻밖의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조병갑이 갑자기 그 부하에게 방곡령을 발포하여 미곡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였다. 그 뒤 자신의 측근에게 명해 미곡 수천 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시세의 변동을 이용해 횡재한 일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미(粗米)를 징수할 때에도 가렴주구하였기 때문에, 인민 중 그 비의비도(非義非道) 함에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수가 공미 운송과정에 개입하여 착복한 사실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공미(貢米) 운송사업을 위해 이운사(利運社)를 만든 이후부터는 정규의 공미 독촉뿐 아니라, 선박 수선비 및 정박비 외에 조선 범선과 운임의 차액까지 함께 징수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의 불평은 더욱 쌓였다고 한다. 이 글에서 이운사가 처음 등장한다. 민영준(閔泳駿)·정병하(鄭秉夏) 등의 발기로 설립된 이운사는 공미 운반과 연안무역을 위한 민관 합작의 특권회사³⁴⁾로, 전운국에서 인수한 조선 기선 창룡호(蒼龍號)·현익호(顯益號)·광제호(廣濟號)와 독일 세창양행(世昌洋行, Edward Meyer & Co.)에서 구입한 이운호(利運號)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운사 조필영은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거둬들여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국 고부농민항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³⁵⁾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録』 「利運社處理方法」, 在釜山 總領事 室田義文→特命全權公使 井上伯, 1894년 10월 24일; 仁川府 編, 1933, 『仁川府史』, 近澤商店印刷部, 1,030쪽.

35) 이에 대해서는 조재곤,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 『역사연구』 34, 참조.

세 번째는 ‘난민’과 ‘동학파’의 구분이다. 니시지마는 동학파 무리는 고부에서 폭민의 봉기를 보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처음에는 난민이 주인이었고 동학파는 객(客)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뒤 기세가 더욱 왕성해짐에 따라 형세가 일변하여 동학파가 주동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동학파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⁶⁾

다음 ‘동학당의 실력’이라는 소제목의 글은 고부농민항쟁과 동학당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동학당의 일파가 고부의 난민과 합세하여 그들의 기세는 더욱 창궐하여 고부 관아를 습격해 지방관을 내쫓고 무기와 양식을 빼앗고 각지의 공미 창고를 훼손하고 약탈하였다고 하였다. 부대와 훈련, 동학당의 근거인 고부군의 총력 구성 상황 등에 관한 내용³⁷⁾은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와 동일하다.

이 책에서 니시지마는 ‘조선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들을 폭도로 보아 가볍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³⁸⁾ 그들은 관리의 가렴주구와 압제에 저항하여 봉기한 이른바 ‘국민적 대동맹군’으로, 이것은 그들의 충정과 고심의 결과이자 결국 큰 파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은 순치(脣齒)의 관계이고 조선은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기 때문에 약소국이라더라도 천하의 이목이 이에 쏠려 그 성패 여하에 주의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 『조선사건:내란실기』는 같은 해 7월 도쿄에서 발행된 책으로 편집 발행 겸 인쇄자가 오카다 쇼페에(岡田庄兵衛)라는 점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책의 「전란일기 (1) 깃발을 들다. 명치 27년 2월 15일 한력 갑오 정월 10일」과 「적세(賊勢)」의 서술³⁹⁾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36)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5~7쪽.

37)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7~9쪽.

38) 志良以染之助, 앞의 책, 81~86쪽.

탄압과 방곡령 발포, 고부군의 촌락 구성 상황, 주도층 관련 내용으로 「전라고부민요일기」·『갑오조선내란시말』과 대동소이하다. 8월 도쿄에서 발행된 『일청한전황실기』의 필자는 요우부쇼군(揚武將軍)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필명으로 편집 겸 발행자는 쓰지오카 분스케(辻岡文助, ?~?)로 되어 있다. 쓰지오카는 에도 말기~대정시대에 걸친 도쿄의 서적 도매업자로 1894년 10월 『일청전쟁평양지역(日淸戰爭平壤之役)』(金松堂)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고부의 민란」이라는 항목에서는, “전라도 고부에도 역시 민란이 일어나 조금 광맹(狂猛)을 가해 동 지역을 시작으로 흥덕·나주·경흥(敬興)·흥양(興陽)·고창·부안 등 7읍의 인민 수만 인이 둔집하여 최시경(崔時京)이라는 자를 괴수(魁首)로 삼아 각각 흰 두건을 쓰고 칼과 창을 들고 황기(黃旗)를 세우고 일거에 고부의 관리 3명을 참살(斬殺)하고 나아가 전문사 조필영(趙弼詠)을 살해한다고 하니 조씨는 이를 듣고 몰래 배를 타고 도주. 난민은 동소에 이르러 창고를 부수고 수천 석의 저장미를 꺼내서 그 양식으로 삼음. 혹은 경성으로 나간다는 세력도 있었다. 전라감영은 곧바로 수십 명의 병사를 보내 진무의 전령서를 내리고자 하였지만 난민 때문에 쫓겨 되돌아오게 되었다”⁴⁰⁾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앞의 『도쿄아사히신문』, 1894년 4월 22일 자 기사 내용을 가공 전제한 것에 불과하다.

『일청한전황실기』와 같은 달 오사카에서 출간된 기타무라 소스케(北村宗助)의 저술 『조선문제 출사사정』의 내용 중 「제8. 동학당 봉기」의 조병갑과 방곡령 부분은 『갑오조선내란시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지난해 일어났던 동학당의 잔당은 때가 왔으니 폭민(暴民)을 도와 관리를 때려죽이자는 격문을 사방에 전하였다. 당원 모두는 폭민과 마찬가지로 지방청에 돌입하고 관리를 살해하고 관사를 때려 부수는 등 낭자(狼藉)가 극에 달하였다. 이때 동학당은 오직 폭민에게 힘을 더하는

39) 岡田庄兵衛, 1894, 『朝鮮事件: 内亂實記』 2版, 文眞堂(東京), 3~6쪽.

40) 揚武將軍, 1894, 『日淸韓戰況實記』, 金松堂(東京), 5쪽.

데 그쳤고 주도하는 폭도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⁴¹⁾라 하여 ‘동학당’과 ‘폭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코자 하였다.

‘골피도인(骨皮道人)’이라는 필명을 쓴 니시모리 다케키(西森武城, 1862~1913)는 메이지 시대의 소설가이자 골계작가(滑稽作家)로 같은 해 10월 『일청교전실기』를 저술하였다. ‘조선 내란 동학당의 기인(起因)’은 고부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고 고부농민항쟁의 원인을 고부군수 조병갑의 방곡령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라고부민요일기」·『갑오조선내란시말』의 내용이 섞여 있다. 반면 고부군민이 세를 몰아 조세미를 비축하던 전운청(轉運廳)에 진격하여 창고 안에서 미맥(米麥) 수백 석을 약탈하여 미리 병량(兵糧)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어윤중(魚允中)을 안핵사(按檢使)로 파견하여 차차 위무 해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어윤중 관련 내용은 1893년 충청도 보은취회 관련 상황과 혼동한 것이다. 당시 안핵사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였다. 니시모리는 동학을 학파의 하나로 보았고 유생들이 정부에 원한을 품고 모여 당의 명칭을 동학으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타다 쇼우켄(多田省軒, ?~?)이 『일청전쟁실기』를 발간하였다. 본명이 타다 키타로(多田喜太郎)인 그는 메이지 중기의 인기 작가의 한사람으로 탐정소설을 많이 썼다. 이 책의 ‘제2집 조선 동학당의 내란, 제1회 동학당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다’에서는 집권 민씨의 학정으로 조선 전국이 도탄에 빠지고 이로 인해 민심이 들끓게 됨에 전라도 고부의 동학당의 봉기는 일시 매우 창궐하였으나 국왕이 타일러 달램으로 인해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다시 봉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⁴³⁾ ‘제2회 흥 초토사 동도를 진무하기 위해 달려나감’의 서술내용에서는 동학당의 민란은 그 세를 맹렬히 해서 고부 현관을 붙잡아 그를 불에

41) 北村宗助, 1894, 『朝鮮問題 出師事情』, 岡島寶文館(大阪), 9쪽.

42) 西森武城, 1894, 『日清交戰實記』, 弘文館(東京), 2~3쪽.

43) 多田省軒, 1894, 『日清戰爭實記』, 辻本尙古堂(東京), 22~23쪽.

태워 죽이고[火殺] 전운청의 창고에 있는 공미 수백 가마를 약탈하여 파죽의 용맹을 떨치고 곳곳을 습격함에 따라 고부 부근은 경악하여 곧바로 급히 전라감사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고부 현관을 불태워 죽였다는 내용은 오보이자 이글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다.

IV. 1895년~일제강점기의 이해

미토번(水戸藩) 출신으로 호가 시잔(紫山)인 가와사키 사브로(川崎三郎, 1864~1941)는 1893~1894년 ‘신문기자동맹’의 리더로서 이른바 대외경파(對外硬派)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청일전쟁 시기인 1894년 7월 『조선혁신책 : 일명 일청개전론』(博文館)을 저술한 바 있다.⁴⁵⁾ 이후 주오신문(中央新聞) 종군기자로서 9월 5일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일행과 동행하여 8일 히로시마 우지나(宇品)에서 조선으로 향했다. 인천·서울을 경유 9월 16일 북방으로 향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후 평양전투와 제1군의 진군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보냈는데, 「종군일기」 13회 연재, 「북정(北征)」 21회 연재 등 2종의 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질[赤痢病]에 걸려 종군을 단념하고, 다음 해 시모노세키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서울에서 기사를 계속 작성하였다.

가와사키는 귀국 후 저작에 집중하여 『일청전사』 전7권(博文館, 1896~1897)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의 저작 중에서는 가장 절 정리된 청일전쟁 통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에서 1894년 3~4월부터 전라도 고부현 부근에서 난민이 집회하여 일을 모의하는 자가 많았는데, 5월에

44) 多田省軒, 앞의 책, 23~24쪽.

45) 大谷正, 1998, 「忘れられたジャーナリスト・史論家・アジア主義者川崎三郎」, 『専修史學』 29.

이르러 고부·흥덕·태인·영광·정읍·부안·여산·백산 등 여러 지역에서 봉기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농민군 봉기원인을 그는 지방관이 오랫동안 취렴(聚斂)하는 것에 분개하여 폭관(暴官) 혹리(酷吏)를 제거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였는데 이를 지휘 조종한 것은 동학당(東學黨)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⁶⁾ 한편 그는 일본인 이민의 조선 이식론을 주장하였는데, 『조선 혁신책』에서는 개전의 결과 청국 세력을 조선으로부터 추방한 후에 구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이왕가를 추방하고 조선의 명족(名族) 중에서 조선공(朝鮮公)을 선정하여 조선공국(朝鮮公國)을 만들고 이를 일본의 보호 아래에 두어 내정개혁을 실시하자는 방책을 제기한 바 있다.

1903년 간행된 『천우협(天佑俠)』이라는 책에서도 고부농민항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 겸 발행자는 세이토 코시치로(清藤幸七郎)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필자는 요시쿠라 요우세이(吉倉沆聖)이다. 천우협에서는 1894년 월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스즈키 텐칸(鈴木天眼)·다나카 지로(田中侍郎)·요시쿠라 요우세이 4인을 ‘담판 위원’으로 삼아 사전 논의한 후에 전봉준의 본영을 방문하고 필담으로 밀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때 전봉준은 “애당초 우리 무리의 의를 고부에서 주창한 주요 내용은, 본래 백성 구제의 염원이다. 불민하게 단지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함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진을 치고, 병사들을 이끌 때라 할지라도, 아직 연도에서 무고한 단 한 사람도 일찍이 해치지 않았고, 추호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다. 이후 지금에 이르는 수개월 또는 관찰사에게 호소하거나, 격문을 사방에 전하여 우리들의 인의(仁義)의 뜻을 밝혔다”⁴⁷⁾라고 한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이자 조선사편수회 편수주임과 편찬주임을 역임하였던 역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는 1930년 자신의 저서 중 ‘2. 동학당 변란’이라는 소제목의 서술내용에서

46) 川崎三郎, 1896, 『日清戰史』(第一卷), 博文館(東京), 28쪽.

47) 清藤幸七郎, 1903, 『天佑俠』, 新進社(東京), 111쪽.

“1893년 충청도 보은현에서 동학도도(東學道徒)의 소요는 다행히 큰 희생을 치루지 않고 진압되었지만 동도의 폭동은 도리어 이보다 빈발을 예상하게 되었다. 과연 보은집회로부터 1개년을 지나서 전라도 고부에서 일대 요란(擾亂)이 발발하게 되었다”⁴⁸⁾라고 하여 보은취회의 연속으로서의 고부항쟁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만석보 개수와 세금 징수가 고부봉기의 발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당시의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은 조선 말기에는 일반 지방과 같이 오랫동안 지방 관헌의 가렴주구에 고통받았고, 농민의 소요가 끊이지 않은 형세였는데, 1892년 내임한 고부군수 조병갑은 혹리(酷吏)의 대표적인 자로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만석보(萬石湫) 개수(改修)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또한 수세(水稅)는 대략 일정한 비율이었지만 조병갑은 1894년 초 인부 수만을 동원하여 대 개축 공사를 하였고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세를 모두 사적으로 하였으며 수세의 비율도 예전에 비해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⁴⁹⁾ 다보하시는 이후 조선사편수회 촉탁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와 함께 조선사편수회장 정무총감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德)의 청탁을 받아 1934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정읍군 소재 고부면 사무소·만석보·향토현·고부 객사와 부안군 백산 등을 현지답사하고 촌로들을 만나 1894년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진과 지도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⁵⁰⁾

갑오년 당시 『고국민신문(國民新聞)』 특파 기자로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취재하였고 이후 『조선왕국(朝鮮國王)』(1896)·『대원군전(大院君傳)』(1910) 등을 저술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1870~1953)는 1932년 10월 10일 ‘동학변란’의 사적을 찾아 전봉준의 옛 거주지인 고부를 방

48) 田保橋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京城帝國大學, 58쪽.

49) 田保橋潔, 앞의 책, 59~60쪽.

50) 朝鮮史編修會 編, 『忠清南道·全羅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昭和九年 十一月 二十一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문한 적이 있었다. 기쿠치의 기록은 당시 촌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고부의 민란」이라는 소재목 내용에서 그는 고부군수 조병갑을 ‘폭학강복(暴虐剛腹)한 탐관(貪官)’으로 규정하면서 농민항쟁의 근본 원인을 만석보 수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조병갑은 앞서 만석보의 수리비(水利費)를 군민에게 부과하여, 그 수리 지역의 인민으로부터 1천 석의 보세(湫稅)를 징수하였는데, 만석보는 정읍의 남에서 분류(分流)하여 이평면의 동남을 관통하여 부안평야의 반 대수리(大水利)를 담당하는 큰 보였다는 것이다.⁵¹⁾ 이때는 갑오 정월 16일로 군수의 엄령에 따라 검속 구치된 읍민 몇 명은 고형(苦刑)에 처해졌고, 군의 아전은 그 접주(接主) 등을 끌어가서 사실을 캐물었다. 정월 10일 고부봉기가 발생하였다는 파계생과는 달리 기쿠치는 정월 16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읍민 심덕명(沈德明)·조성국(曹成國)·최시중(崔時中)·김봉현(金鳳賢)·은세방(殷世邦)·은인식(殷仁植) 등은 꺾기하여 군청으로 쳐들어가서 강하게 담판하는 중에 읍민이 일제히 군아에 쇄도하여, 관의 공문서를 찢어버리고 무기고를 파괴하였는데, 읍민이 더욱 가세하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심덕명 등은 여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자를 일부 달리하는 김봉현(金鳳鉉)이 1896년 4월 태인에서 체포되어 장(杖) 30대에 처해진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⁵²⁾

「전봉준 일어나다」·「전봉준의 인물」에서는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도 소개하고 있다. 지휘자 전봉준은 이평면 장내리에 거주하는 촌부의 아들로, 읍내의 노인들은 관군 정토가 도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퇴산을 원했고 읍민들도 소란한 동네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을 떠나려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전봉준은 일동에게 소

51) 菊池謙讓, 1939, 『近代朝鮮史』(下), 鷄鳴社(京城), 213쪽.

52) 『司法稟報』(甲) 第六冊, 「報告書」, 全州府參書官 廉圭桓→法部大臣 李範晉, 建陽元年四月九日.

리치며 ‘백산(白山)에 집합하자, 백산의 창고를 개방하자, 그리하여 관곡을 탈거(奪去)하자’고 명하고 궁민(窮民)을 구제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백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당시 백산의 창고는 4천 석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전봉준은 ‘구미위원(救米委員)’을 선정하여 이를 여러 이웃에 분배하자 부근의 궁민이 이를 듣고 다투어 참가하여 이를 만에 3천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기쿠치는 이평면장을 동반하고 전봉준의 옛 거주지 장내동(長內洞)에 도착하여 거주하던 초가를 찾고 동내의 부로(父老)를 불러 그의 인물됨을 묻기도 하였다. 이때 촌로가 말하기를 “그가 고부의 민란에 가기 며칠 전 어디에선가 내객 3~5명이 왔는데 모두 낯선 사람들로써 후에 이들 손님은 모두 동학당의 요인들이었다”⁵³⁾고 하였다. 고부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인사들이 연합하여 대규모 민중항쟁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맺음말

고부농민항쟁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는 「계사 십일월 사발통문」과 파계생의 「전라고부민요일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전자는 전주영을 함락하고 변혁세력을 구축하여 서울로 직향한다는 항쟁의 대체적인 계획과 여기에 참여 인물을 잘 알려주는 문서이다. 후자는 고부농민항쟁의 단초를 제공한 조병갑의 인물평, 항쟁의 발생일과 확산 및 조직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항쟁의 가장 큰 원인은 방곡령과 보세 징수, 전운영 문제 등을 들고 있다. 1894년 당시의 일본인의 기록은 공사관과 영사관 작성 보고문서를 제하면 대부분은 「전라고부민요일기」를 토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각색한

53) 菊池謙讓, 앞의 책, 214~216쪽.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반면 고부지역 농민군의 경성진출 모의는 ‘사발통문’의 내용과 유사하다. 농민군 모집에 유인책을 쓰거나 이운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일부 보인다. 또한 난민과 동학도를 구분하여 여타 민란과 고부항쟁과 차별성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실체가 없는 허구의 지도자를 실명으로 제시하거나 고부군수 타살 및 3명의 관리 참살(斬殺) 등에 대한 언급 등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오보도 적지 않다.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후부터 일제강점기에도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방관의 탐학과 농민항쟁 지도자 전봉준에 대한 평가,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한 농민군 지도부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파계생’이 이치지 코스케가 맞는다면 전라도 고부농민항쟁의 진상 파악은 동시기 일본 참모본부의 기획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독일 군제를 모방하여 1878년 육군성 참모국이 독립하여 군령기관으로 창설된 참모본부는 정부 조직체계뿐 아니라 육군성과도 독립된 기관으로 작전계획과 지휘·수행 등에 관해 천황에 직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⁵⁴⁾ 고부농민항쟁의 동향파악에 참모본부가 동원되었다. 그 내용은 각종 신문매체와 상업서적 등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상세하게 전파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일본 군부는 일찌감치 기획하고 있던 청일전쟁 준비와 조선 출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즉, 고부농민항쟁의 실상파악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은 천황제를 토대로 한 ‘군국주의

54)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参謀本部』, 中公新書.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참모본부는 광개토대왕 비문 탁본 번조, 왕궁점령 전말 역사기록의 체계적 위조, 왕후 민씨 살해 주도 등 조선의 역사 및 정치 현상과 관련한 사실 왜곡의 역사적 경향이 적지 않게 있었다(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金文子, 2009,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1904년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명치이십칠팔년일청전사(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전8권)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제43장 병참(兵站)」에서 전신선을 절단하고 양식 조달을 방해하는 ‘폭민(暴民)’ 즉, 동학농민군과의 대결이 필요하여 재봉기한 동학과의 전투 즉, 섬멸 작전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군부의 기획(planning)과 실행(practice) → 대중 매체(mass media)를 통한 선전(propaganda)과 확산(diffusion) → 국민적 인지(cognition)'라는 연쇄 과정을 거쳐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제(mechanism)가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과 영사관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

투고일 : 2024. 3. 29.	심사일 : 2024. 4. 27.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참고문헌

〈자료〉

- 『各司謄錄』 13, 『書契所報關錄』 3, 慶尙道篇 3, 甲午四月十九日.
法務衙門, 「(第37號)判決宣告書原本」, 開國 504年 3月 29日[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編, 1994, 『東學關聯判決文集』].
吳知泳, 1924, 『東學史』(草稿本).
『司法稟報』(甲) 第六冊, 「報告書」, 全州府參書官 廉圭桓→法部大臣 李範晉, 建陽元年四月九日.
仁川府 編, 1933, 『仁川府史』, 近澤商店印刷部.
朝鮮史編修會 編, 『忠清南道·全羅南北道史料採訪復命書』(昭和九年 十一月 二十一日)[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 葛生能久, 1938, 『日支交渉外史(上)』, 黑龍會出版部(東京).
岡田庄兵衛, 1894, 『朝鮮事件：內亂實記』 2版, 文眞堂(東京).
高橋友太郎 編輯 發行, 1894, 『朝鮮暴動實記』(東京).
菊池謙讓, 1939, 『近代朝鮮史』(下), 鷄鳴社(京城).
多田省軒, 1894, 『日清戰爭實記』, 辻本尙古堂(東京).
東條英教, 『征清用兵 隔壁聽談』,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자료, #.1636. 1897.
陸奥宗光, 『蹇蹇錄』(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資料, 外務省記錄調書 官41), 第1章 東學黨ノ亂.
北村宗助, 1894, 『朝鮮問題 出師事情』, 岡島寶文館(大阪).
西森武城, 1894, 『日清交戰實記』, 弘文館(東京).
揚武將軍, 1894, 『日清韓戰況實記』, 金松堂(東京).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校, 1936,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卷), 祕書類纂刊行會(東京).
田保橋潔, 1930, 『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京城帝國大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志良以染之助, 1894, 『甲午朝鮮內亂始末』(제1편), 駸々堂(大阪).
參謀本部 編, 1904,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爭』 1, 東京印刷株式會社(東京).
川崎三郎, 1896, 『日清戰史』(第一卷), 博文館(東京).
清藤幸七郎, 1903, 『天佑俠』, 新進社(東京).
『大阪毎日新報』.
『讀賣新聞』.
『東京朝日新聞』.
『時事新報』.
『二六新報』.

『參謀本部歴史草案』 17(資料), 參謀總長 熾仁親王, 明治 27년 6월 1일~12일.

〈단행본〉

金容燮, 2001, 『韓國近代農業史研究』(III), 知識産業社.

朴宗根 著, 朴英宰 譯, 1989, 『清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一潮閣.

裴亢燮,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景仁文化社.

정창렬, 2014, 『갑오농민전쟁』, 선인.

崔玄植, 1980, 『甲午東學革命史』, 郷土文化社.

金文子, 2009,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参謀本部』, 中公新書.

大澤博明, 2019, 『陸軍參謀川上操六 : 日清戰爭の作戰指導者』, 吉川弘文館.

由井正臣 校注, 1982, 『後は昔の記 他(林董回顧録)』, 平凡社.

長南政義, 2011, 『坂の上の雲に描かれなかった謀將 伊地知幸介』(ゲームジャーナル編,
『坂の上の雲5つの疑問』, 並木書房).

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쿠로노 타에루 著, 최종호 譯, 2015,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 논형.

〈논문〉

鄭昌烈,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 한국사연구회, 117~144쪽.

——, 1985, 「古阜民亂의 研究」(下), 『韓國史研究』 49, 한국사연구회, 99~134쪽.

조재곤, 2018,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 『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121~152쪽.

나카스카 아키라 著, 한혜인 譯, 2014, 「청일전쟁을 둘러싼 기억」, 『또 하나의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大谷正, 1998, 「忘れられたジャーナリスト・史論家・アジア主義者川崎三郎」, 『専修史學』 29.

〈Abstract〉

Japanese Perception of Gobu Peasant Uprising

CHO JAE GON*

As a previous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War, the meaning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is not small. The small-scale peasant uprising that occurred in January 1894 in Gobu, Jeolla-do, of the Joseon Dynasty eventually turned into the Donghak Peasant War. The Gobu Peasant Upris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first uprising, and the subsequent dispatch of the Qing army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tide in Japanese politics, so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were able to dissolve the parliament and provide an excuse for the dispatch of troops. This article examines the whole story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which was understood by the Japanese,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media, and individuals, focusing on data prepared during the same period, from the outbreak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to the subsequent Japanese colonial era. First, the process and author of the "Jeollado Gobu Peasant Uprising Diary" written immediately after the Gobu Peasant Uprising in the spring of 1894 were presumed and the core contents were examined. Second, in the same year, the understanding and reality of the Gobu Peasant Uprising, which appeared in the records of the Japanese mission to Korea, the reports of correspondents of each media company in Joseon, and personal writings, were examined. Third, it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Gobu

* Research Professor of SGKI at Sogang University

Peasant Uprising, which was understood in books written from 1895 to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 : Gobu Peasant Uprising, Donghak Peasant War, Ichigi Kosuke, Jeolla Gobu Peasant Uprising Diary, Fagye-Saeng

